

탐라 천년의 중심지

제주시의 중앙로는 북쪽 바닷가에서 제주대학교 입구까지 이어지는 제주시의 중심 도로이다. 중앙로 일대는 옛날 탐라국 시대부터 정치, 행정,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해 왔다. 최근 많은 문화인들이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문화의 중심지로 부활을 꿈꾸고 있다.



중앙로 | 제주시 삼도2동 1192-6 ~ 제주시 아라1동 423-3(약 7.5km)

관덕로 | 제주시 삼도2동 887-1 ~ 제주시 일도1동 1476-2(약 0.7km)

무근성길 | 제주시 삼도2동 1200-1 ~ 제주시 삼도2동 1071-4(약 0.5km)

북성로 | 제주시 일도1동 1277-21 ~ 제주시 삼도2동 1158-41(약 0.7km)

탐동로 | 제주시 삼도2동 1192-21 ~ 제주시 삼도2동 884-4(약 1.4km)

탐동해안로 | 제주시 삼도2동 1254 ~ 제주시 삼도2동 1262(약 0.9km)

관덕로4길 | 제주시 삼도2동 956-1 ~ 제주시 삼도2동 927-2(약 0.2km)

중앙로 | 원도심

중앙로는 제주시의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길이다. 바다와 마주하는 탐동해안로에서 시작해서 한라산을 지나는 516로를 만나기까지 약 7.5km에 걸쳐 이어진다. 제주시내의 뼈대를 이루는 길로 칠성통, 시청 등의 변화기는 모두 **중앙로** 주변으로 형성되었다. 누군가에게 제주를 대표할 만한 길을 꼽으라고 한다면 제주 올레길이나 해안도로, 아니면 오름을 지나는 숲길 등을 말하겠지만, 제주의 역사와 문화가 깃들여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바로 **중앙로**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옛날 제주성이 있던 원도심 주변의 길은 수천 년에 걸친 제주 사람들의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있다.

관덕로 | 관덕정

중앙로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관덕로**는 보물 제 322호인 관덕정 앞을 지나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조선 세종 때 지어진 관덕정은 조선시대 병사들을 훈련시킬 때 사용하던 건물이다. 무인들을 양성하는 곳에 ‘마음을 바르게 하고 훌륭한 덕을 쌓는다’는 뜻의 ‘관덕’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유학을 숭상하던 조선 사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관덕정의 기둥을 연결한 창방 부분에는 적벽대첩도, 십장생도, 대수렵도 등 건물이 세워질 당시에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 그림들이 남아있다.



관덕정

관덕정 주변은 20세기 초기까지만 해도 제주 사람들의 광장 역할을 담당했다. 병사들을 훈련시켰던 넓은 공터는 오일시장이 최초로 들어서는 등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변화가였다. 지금은 자동차가 다니는 큰 길들이 생기면서 광장의 역할은 사라지고 곳곳에 세워진 비석들만이 과거의 역사를 말해 주고 있다.

관덕정 옆에는 조선시대 정치, 행정,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해온 제주목관아가 있다. 제주목사는 이곳에 머물면서 제주의 모든 업무를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제주에 부임한 목사는 286명에 이르는데 평균적으로 1년 10개월 정도의 기간을 재임했다고 한다. 그 중에는 이경록 목사처럼 6년 넘게 목사직을 수행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변협 목사처럼 한 달 만에



제주목관아

끝나버린 경우도 있었다. 목사 중에 선정을 베푼 경우에는 제주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을 살펴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진상품을 핑계로 자신의 사욕을 채기던 탐욕스러운 목사도 있었다.

고득중이 남긴 <홍화각기>에는 제주목관아에 58동의 건물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일제강점기 때 대부분 훼손되고 관덕정만 유일하게 남아있었다. 지금은 여러 건물들이 복원되어 옛 관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무근성길 / 북성로 | 무근성

제주목관아 주변은 제주의 옛 왕국인 탐라국의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제주목관아 서쪽에는 **무근성길**이 있다. 탐라는 제주의 옛 명칭으로 제주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다. 탐라국은 바다를 터전으로 하는 해양왕국으로서 번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라에서 외적을 막기 위한 의미로 세웠던 황룡사 9층탑의 네 번째 층이 탐라에 해당되었던 것을 볼 때 당시 탐라는 주변국들을 위협할만한 세력을 떨쳤을 것이다. 제주목관아 서북쪽에는 탐라국 시대 쌓았던 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옛날에 쌓은 성이라는 뜻의 ‘목은 성’이라고 부르다가 ‘무근성’으로 변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무근성길은 **북성로**와 교차된다. **북성로**는 옛 제주성의 북쪽 도로라는 의미이다. 탐라시대의 무근성의 위치와 그 후 이어진 제주목관아의 위치가 비슷한 것을 보면 예로부터 이 주변 일대가 위정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산지천에서 솟아나는 샘물들이 있어 물을 구하기 쉬웠고, 제주시의 중심에 위치해서 동서로의 이동이 쉬웠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더불어 바다와 가까이 있어 적의 침입에 빠른 대응이 가능한 것도 한 몫 했을 것이다.

지금은 무근성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 탐라국의 영광을 확인할 수 없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지명을 통해서나마 옛 탐라국의 역사는 면면히 전해지고 있다.

탐동로 / 탐동해안로 | 탐동

탐동로는 탐동을 통과하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무근성의 북쪽 바닷가 마을에는 과부가 많이 살았었다고 한다. 그래서 좋지 않은 기운이 마을에 있다고 여겨 돌탑을 쌓고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탑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탑알, 탑바리, 탐동으로 불리다가 지금은 탐동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과거에는 탐동로 북쪽 지역이 모두 바다였다. 1980년대 후반에 매립을 하면서 매립지가 생기고, 그 자리에 호텔과 상가시설, 공연장, 광장 등이 들어서면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탐동매립지 해안가를 지나는 길인 탐동해안로에는 바다를 가까이 보며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무더운 여름에 더위를 식히는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탐동해안로 인근의 탐동해변공연장에서는 매년 여름이 되면 국제관악제가 열려 전 세계의 연주자들이 한여름 밤의 축제를 연다.



탐동산책로

관덕로4길 | 향사당

관덕로 남쪽으로 이어진 관덕로4길을 따라 가다보면 향사당이 나온다. 이곳에서 옛날 사람들은 공자의 뜻을 기리며 활쏘기를 하고, 잔치를 베풀었다고 한다. 처음에 산지천 부근에 있던 향사당은 이곳에 옮겨진 후로 30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왔다. 개화기 때에는 제주 여학교의 효시인 신성학원의 교지로 활용되어 제주교육의 산파역할을 하기도 했다. 신성학원은 제주에 유배왔던 박영효의 도움과 프랑스 선교사인 라쿠르 신부의 노력으로 출발하였다. 여성 교육이 어려웠던 시기에 신성학원은 제주 여성들의 신교육을 담당했다. 이때 배출된 인재들은 훗날 제주의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서 큰 역할을 했다. 특히 1회 졸업생인 최정숙은 제주도 1대 교육감이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여성 교육감으로 제주교육을 이끌기도 했다.

이렇게 제주의 오랜 역사와 문화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원도심은 주요한 역할들을 하던 기관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점점 힘을 잃어갔었다. 하지만 최근에 문화인들의 노력으로 새로운 문화의 바람을 일으키며 문화 1번지로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